

참다운 변화가는 어디에 있는가

사회주의변화가!
이제는 공화국의 인민들만이 아닌 세인이 우후죽순처럼 일떠서는 황홀한 조선의 새 거리들을 두고 더치는 감탄사이다.
창전거리에서 이어 미래과학자거리, 려명거리, 송화거리와 경루동, 화성거리.
평양의 모습을 이제 새롭게 변모시키는 이런 호화거리들과 함께 삼지연과 려포, 검덕을 비롯한 산간지대와 벌방농촌들에도 사회주의문명을 상징하는 최첨단 새집들이 즐비하다. 그 새집들의 문패에 적힌 수많은 이름들을 보라.



상하수도관리공과 무계도 전차운전사, 화력발전소로동자와 방직공, 농장원 등 자본주의세계갈오면 사회의 최하층으로, 빈곤층으로 버림받고 배척받을 근로자들의 이름이 또렷이 새겨져 있다.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이 나라의 가장 평범하고 소박하며 수수한 근로대중이 변화의 당당한 주인으로 사는 나라.
돌이켜보면 근로하는 사람들과 변화와 호화라는 말은 어울릴수 없는 너무도 상반되는 개념으로 굳어져왔고 이 행성의 일반적인 상례로 되어있다.
미국판 농고보야도 일명 《서있는 도시》라고 하는 뉴욕의 변화가 맨하탄에는 마천루들이 빼곡이 서있다. 남조선의 서울에서 제일 땅값이 비싸다는 강남구에는 초호화주택들이 밀집되어 있다.
다른 자본주의나라들에도 손가락을 미쳐 다 꼽지 못할 정도로 호화층과 변화가 들어 있다.
자본주의문명과 발전상의 속도라고 하는 이런 도시와 거리들에 인민의 모습이 있는가.
물론 있다. 그러나 시야에 안겨드는 그들의 모습은 변화와 호화층의 어마어마하고 으스스리한 위상에 잘 어울리지 못한다. 그 《우아함》과 《활활함》이 가려진 조라한 막바지거리에서 비애를 삼키는 처량한 모습들이다.
맨하탄에는 가난하고 어지럽고 비좁은 곳으로 소문난 《할렙구역》(빈민촌)이 있는데 그곳의 주인들은 흑인들, 실업자들, 의지가지랄해

없이 벌어먹고 사는 아이들이다.
서울의 강남구도 《부자들의 천국》이라고 불리우지만 《천국》에는 《죽방촌》, 《달동네》로 불리우는 서민들의 지옥이 있다.
판자차 비닐, 지함으로 어설프게 지은 집 아닌 《집》들에 문패가 있을수 없음을 너무나도 당연하다. 오물무지와 다름없는 곳에 문패란 가당하기나 하려 설사 문패가 있다면 무엇을 써넣는단 말인가.
언제 바람에 날려 없어지고 눈비에 물러앉을지 모를 집을 집이라 불려 주소를 써넣으며 개, 돼지보다 못한 인성이 어디 사라다문대 있어 인명을 써넣겠는가.
또 제 집이란 평생 가져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인 그런 사회에서는 집문패에 이름을 써넣는다는것은 한낱 꿈에 불과하고 기껏 이름을 써넣었다자 그것은 집세를 물어야 할 패족일뿐이다.
구소수의 특권층들의 이름이 새겨진 자본주의변화가의 나라와 근로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새겨진 사회주의변화가의 문제.
이 대조적인 문패는 공화국의 인민들이 누리는 행복과 희열이 어떤것인지 다 말해주는 뚜렷한 징표이다.
공화국에서는 모든것이 다 그러하지만 제일 훌륭하고 최첨단 새집도 당연히 그 주인은 인민이 되고있다.
그야말로 인민이란 이 부름은 모든 부와 문명, 락과 복을 다 누릴수 있고 가질수 있는 특권의 대명사로 되고있다.
이 특권의 이름을 세상 이 보란듯이 문패에 새긴력사는 과연 언제 시작되었던가.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서는 해방후 토지개혁령이 발표된지 며칠이 지난 후 대동군 시족면 성문리(당시)를 찾으신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마을에서 20년동안 지주집머슴살이를 한 농민을 친히 만나주시고 마을에서 제일 부유하게 살아온 그에게 동리

에서 제일 큰집을 안겨주시었다.
그리고 친히 《박장반》이라고 문패를 써서 그의 집 대문기둥에 높이 달아주시었다.
풍우에 다 썩은 버짙이영을 무겁게 이고 쓰러져가는 오막살이에서 살아야만 했던 인민.
집의 주인, 땅의 주인, 나라의 주인으로 해방조선에 인민이라는 이름을 긍지있게 새긴 력사가 그날에 시작되었다.
《박장반》—그 이름은 짓밟혀 천대받던 머슴의 이름이 더는 아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온 세상에 떠돌아다니신 인민의 이름이었다.
그렇게 시작된 사랑의 문패의 력사는 장구한 세월이 땅속에 행방의 문패, 기쁨의 문패의 력사로 줄기차게 이어져왔다.
주제90(2001)년 7월 어느날 황해북도 서흥군의 범안리를 찾으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서는 과일나무밭을 배경으로 아담하면서도 멋들어지게 새로 지은 한옥의 그림처럼 아름다운 살림집들을 바라보시면서 별세상에 온것같다고, 범안 땅에 소리높이 자랑할수 있는 훌륭한 농촌마을이 일떠서니 무릉도원같다고 기쁨을 금치 못해하시었다.
그러시고는 옛날에는 집집마다 여러가지 과일나무들을 많이 심어놓고 《배나무집》이요, 《감나무집》이요 하는 식으로 이름을 지어 붙였는데 집주변에 과일나무도 많이 심고 집집마다 문패도 써붙여야 한다고 하시었다.
사회주의선경마을에 사는 궁지와 자부를 보란듯이 문패에 칩 새기고 무릉도원을 가꾸가는 주인으로 행복하게 살아가라는 그이의 깊은 뜻과 축복이 이 교시에 뜨겁게 어려여었다.
옛날에는 돈있고 권세있는 부자집대문에만 빼것이 나 붙어있던 문패가 근로하는 인민의 이름으로 자랑스럽게 나붙는 문패.
오늘날 년년이 사회주의변

화가로 일떠선 새 거리들과 농촌진흥의 새 력사가 펼쳐지는 마을들의 새 살림집들에는 이런 문패가 헤일수 없이 나붙어있다.
송화와 화성은 물론이고 자본주의사회의 거부들도 입을 벌리고 부러워하는 아름다운 구슬다라락과 눈부시게 변모된 농촌살림집들에는 인민의 이름이 새겨진 문패가 붙어있다.
황금만능의 사회에서 변화가의 문패란 억만장자들이나 권력을 틀어쥔 정객들을 상징하는 명함장파도 같은것이 아니라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에서 변화가의 문패는 근로하는 인민이 누리는 만복의 중서와도 같은것이다.
존대받고 사랑을 받는 그 행복으로 눈물이 절로 흐르고 근로하는 생으로 사는 보람과 희열이 가슴을 채워주는 기쁨과 웃음의 문패.
이 문패는 공화국의 위상과 비약적인 발전상을 직관적으로 보여주며 솟아오른 새 거리, 새 살림집들과 더불어 늘어난 가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우리 당과 국가가 펼치는 대규모의 살림집건설작전은 어떤 경제적리득을 위한것이 아니라 철두철미 국가의 재부와 근로대중의 창조적로동의 결과가 고스란히 근로자들자신의 복리로 되

게 하는 숭고한 사업이라고 말씀하시었다.
지금 화성지구와 서포지구, 온 나라 농촌들에서 살림집건설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있다.
단지 몸을 담고 사는 집이 아니라 그 하나하나가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고 경관과 부러움을 한껏 자아내게 하는 멋쟁이집들이다.
그야말로 사회주의변화가의 전성기, 부흥기가 펼쳐지고있다.
예로부터 튀니튀니해도 집이 재산이라고 하였는데 말 그대로 인민의 재부가 늘고 인민의 복리가 커지고있다.
언제인가 남조선의 언론은 빈부의 상황에 대한 자료를 발표한적이 있다.
그에 의하면 세계 10대 순위에 드는 10명의 부자가 31억명보다 더 많은 부를 소유하고있으며 국민층은 33시까만 100만명씩 늘어나고있다고 하였다.
이것이 바로 그토록 입이 닳도록 온 세계에 대고 자본주의가 떠드는 《발전》과 《문명》의 실상이다.
하지만 공화국을 보라.
시간마다, 날마다 늘어나는것은 인민의 재부이다.
인민의 보금자리가 늘어나고 인민의 생활을 보다 윤택하게 하여주는 창조물들

이 늘어나고있으며 자본주의문명을 던고 누리는 사회주의문명의 려전이 늘어나고 있다.
아무리 리관과 난관이 중중첩첩이고 적대세력의 도전과 방해는 날이 갈수록 극렬해져도 사회주의의 변명과 발전을 가로막을수 없고 그 변명과 발전을 역세게 떠밀어주는 공화국의 힘은 어찌도 그리하였지만 오늘도 변함없이 불가항력이다.
력사는 자기 힘을 믿고 결연히 일떠선 인민을 멸망시킨 폭력이란 존재한적이 없다.
공화국의 인민들이 령도자의 뜻을 받들어 오로지 제 힘을 믿고 사회주의변화를 일떠세웠다면 래일에는 그 힘으로 세상에 없는 사회주의강국을 보란듯이 일떠세울것이다.
그리고 다음인 자기의 손으로 존엄하고 위상높은 천하제일강국의 빛나는 승리의 문패를 달것이다.
사회주의의 승리!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 확신하시고 공화국의 인민들이 절대로 믿는 사회주의승리의 문패를 사랑과 행복의 문패가 나붙는 아름다운 사회주의변화가의 드높은 창가에서 인민은 보고 있다.
김대룡



서울의 광범구

역사에 기록된 감동깊은 인민적시책들

낮추어주신 전차요금

주제36(1947)년 12월 어느날, 밤은 소리없이 깊어가건만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집무실에서는 불빛이 꺼질줄 몰랐다.
이날 회의에서 산업국일꾼들이 전차들이 다 낡아서 고장이 자주 생기는데다가 일제때부터 가지고 있던 전차부속품들도 거의 다 떨어져서 제대로 가동하고있지 못한 조건에서 전차운임을 낮추기 곤란하다고 제기하는 바람에 이 문제에 대한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평양전차사업소(당시) 일꾼들을 부르시고 전차운임을 낮추는 문제와 관련하여 제기된 문제들에 대하여 알려주시면서 동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라고 하시었다.
잠시후 사업소일꾼이 일어나 전

에서 곤란이 많지만 동무들이 열성을 다해서 전차부속품이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제때에 수리하여 우리의 힘으로 원만히 가동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시었다.
10전에서 5전으로 낮추어진 전차운임.
일꾼들은 거기에 갇든 그이의 숭고한 인민관에 절로 머리가 숙여졌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전차사업소의 일꾼들에게 동무들의 책임이 무겁다고 하시면서 시민들의 유일한 교통수단인 전차를 어떻게 하면 더 잘 운영할것인가를 연구하고 모르는것은 열심히 배워야 한다고 간곡하게 당부하시었다.
토의문제가 원만히 결속되어 회의는 끝났으나 인민을 위하여 새로운 구상을 펼쳐가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집무실에서는 불빛이 꺼질 줄 몰랐다.
본시기자

김일성주석 평양음악무용종합대학 주체음악연구소 실장 후보원사이며 교수, 박사인 박형섭선생은 재능있는 민족음악가로 내외에 널리 알려져있다.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교육자로서, 민족음악가로서 성공적인 인도로 돌출해 오셨는지 되짚어보는 것은 흥미로운 일이다. 이 세상에서 태어날 때 자기는 분명 불운이었다고.
우리와 만난 자리에서 그는 자기 인생의 첫시작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하였다.
《나는 해방전 천태군의 빈농가 정에서 8남매의 다섯째로 태어났습니다. 암흑의 그 세월 지리 천태반던 가정이다보니 가문에는 학교를 다녀본 사람이 한명도 없었습니다.》
어디서부터 그는 음악선동으로 마을에 소문이 났다고 한다. 학생은 눈물을 머금으며 말하였다.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 찾아오는 민요 《아리랑》의 곡조를 붙여 주신 새 삶의 빛깔은 그에게 노래를 다시 안겨주었다.
나라의 은덕으로 학교에 가게 되는 《아리랑》의 구슬픈 곡조에 자기들의 불우한 인생을 실어보며

슬퍼 울곤 하였다. 처량하게 울러 가는 단소소리와 함께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고 웨치는 울부짖음도 들리었다.
그러던 어느날 왜놈들이 달려들어 그의 손에서 단소를 빼앗아 더러운 계다짜리로 마구 짓밟 생길을 걸어올수 있게 되었는데 이렇게 대답하곤 한다.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자기는 분명 불운이었다고.
우리와 만난 자리에서 그는 자기 인생의 첫시작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하였다.
《나는 해방전 천태군의 빈농가 정에서 8남매의 다섯째로 태어났습니다. 암흑의 그 세월 지리 천태반던 가정이다보니 가문에는 학교를 다녀본 사람이 한명도 없었습니다.》
어디서부터 그는 음악선동으로 마을에 소문이 났다고 한다. 학생은 눈물을 머금으며 말하였다.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 찾아오는 민요 《아리랑》의 곡조를 붙여 주신 새 삶의 빛깔은 그에게 노래를 다시 안겨주었다.
나라의 은덕으로 학교에 가게 되는 《아리랑》의 구슬픈 곡조에 자기들의 불우한 인생을 실어보며

애국운동, 대중운동의 위력을 떨치며

로동영웅운동과 증산경쟁운동

로동영웅운동은 로동자들속에서 일어난 여러가지 형태의 생산돌격운동을 조직하고 일반화한 대중운동으로 해방후 공화국에서 처음으로 조직된 애국적인 증산경쟁운동형태였다.
주제35(1946)년 2월 북조선공산당 중앙조직위원회 제4차 확대집행위원회에서 공장, 광산, 농촌에서 로동영웅운동을 광범히 조직하여 로동자, 농민들이 새 조국건설을 위한 혁명적인 경쟁에 적극 참가하도록 할데 대하여 밝히신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서는 당조직들과 대중단체들이 이 운동에 대한 조직사업을 강화케 전

개하도록 하시었다.
한편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주제 35(1946)년 4월 홍남비료공장(당시)을 찾으신어 홍남의 로동계급이 새 조국건설에서 모두가 로동영웅이 되라고 고무격려하시었다. 뒤에 이어 함경남북도의 여러 지역을 현지지도하시면서 로동자, 농민들을 로동영웅운동으로 힘있게 불러일으키시었다.
로동영웅운동은 삼시에 온 나라 공장, 기업소, 농촌들에 확대되어 갔다. 이 운동의 불길속에 1946년 말에 이르러서는 황해제철소(당시)를 비롯한 822개의 공장, 기업소들이 복구되어 조업하였고 알곡은

전해보다 340여만석이나 더 많은 1450여만석을 생산하였다.
공화국에서 위력을 발휘한 로동영웅운동은 대중적증산경쟁운동으로 더욱 심화발전되었다.
각지의 로동자들은 자력갱생의 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파괴된 생산시설들을 복구하고 수많은 창고, 교관, 기술혁신안을 받아들여 생산에서 전례없는 양상을 일으켰다.
공업과 농업을 비롯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활발히 벌어진 로동영웅운동, 애국적인 증산경쟁운동은 나라의 경제발전을 힘있게 추동하였다.
본시기자 김철

행복의 《아리랑》을 곡조에 담아

에 다 바쳐온 지난 수십년세월 그 어느 《조선민족악기》를 집필하여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지도 밑에 기록된 민족악기들의 개량완성성과를 고증하여 후세에 남기고 3명의 박사학을 비롯한 수십명의 석사들을 양성하였으며 여러 국제학술대회에 참가하여 우리 민족음악의 우수성을 빛내었다.
후보박사, 교수, 박사!
그가 오른 성공으로의 계단들에는 평범한 민족음악가를 위해 줄수 있는 모든 사랑을 다 내려준 어머니조국의 따사로운 손길이 뜨겁게 어려여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한 민족음악가가 이룩한 공적을 높이 내세워주시고 80번째 생일을 맞을 때에는 사랑의 생일상도 보내주시는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 주시었다.
《그때 나는 내가 받은 크나큰 영광과 행복, 값높은 삶을 민요 《아리랑》에 담아 세상에 알리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며 그는 단소를 꺼내들었다. 그리고는 민요 《아리랑》을 연주했다.
조선민요의 상징으로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명곡의 구성진 소리가 방안에 울려나왔다. 나라였던 그 세월에 그가 연주한 《아리랑》의 곡조에 슬픔과 한탄이 실려있었다면 오늘에 연주하는 단소소리에는 더없는 기쁨과 행복이 가득 실려있었다.
《우리 조국은 찬란한 태양의 빛깔이 넘치는 나라입니다. 밝은 해빛이 가득한 사회주의조국에서 나의 인생이 빛나듯처럼 우리 후대들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후미를 키우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가를 잘 말해주고있다.
새세대 민족음악가 후비들을 키워내는 사업에 지혜와 열정

그는 민족음악가후비들을 키워내는 사업에 온갖 열정을 다 바치었다.
교단에 선지 불과 몇해사이에 그가 키워낸 두명의 제자가 아버지수령님께 단소 독주를 보여드려 기쁨을 드렸다는 사실은 그가 민족음악가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교시하시었다는 소식에 접하게 되었다.
《내 한생 민족음악을 발전시키는 길에 하나의 디딤돌로 살리라.》
그는 민족음악가후비들을 키워내는 사업에 온갖 열정을 다 바치었다.
교단에 선지 불과 몇해사이에 그가 키워낸 두명의 제자가 아버지수령님께 단소 독주를 보여드려 기쁨을 드렸다는 사실은 그가 민족음악가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교시하시었다는 소식에 접하게 되었다.
《내 한생 민족음악을 발전시키는 길에 하나의 디딤돌로 살리라.》
본시기자 홍흥식

